

# “난 변했다... 그 변화를 담았다”

## 자이언티, 새 앨범 'OO' 모든 차트 '올킬' ... 타이틀 '노래' 포함 수록곡 모두 10위권내 진입

### 지난 수개월간 음원 차트 지배한 '도깨비' OST 단번에 지워

“뭔가 머리를 ‘썩’ 하고 스크러치나갈 때 일일이 다 메모를 하는 타입입니다. 어떤 좋은 문장이 떠오르거나 ‘이건 노래다’하는 말이 생각되면, 거기에 어떤 멜로디를 붙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런 메모와 그 메모에 어울릴 멜로디로 만든 노래들이 음원 차트를 단번에 장악했다.

가수 자이언티(Zion.T)(28·김해솔)는 지난 1일 지정 발표한 새 앨범 'OO'로 모든 차트를 이른바 '올킬'(all kill)했다.

1위에 오른 타이틀 '노래'를 포함해 앨범 수록 7곡 모두 음원차트 10위권내에 진입했다.

지난 수개월간 음원 차트를 지배한 드라마 '도깨비' OST들은 단번에 지워졌다.

“자이언티가 도깨비의 검을 뽑았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이날 오전 내내 온라인상을 떠돌았다.

“노래”는 말 그대로 꽃히는 노래다. 쉬운 멜로디에 “이 노래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해”라는 가사가 들자마자 입을 뗀다.

“양화대교”에서 그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고 노래했던 것만큼 중독성이 있다.

독특한 그루브와 유일무이한 목소리가 자이언티의 첫 번째 감점이라면, 두 번째 무기는 그의 노래말이다.

“할아버지는 대답했지만 집 의식의 흐름대로 써요. 음악을 만들다보면 너무 재밌어서 혼자 웃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가사가 됩니다. 빨리 알려주고 싶거든요.”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관’ ‘노래 Comedian’ 미안해(feat. Benzino) ‘나쁜놈들’ Complex(컴플렉스)(feat. G-Dragon) 비람(2015) 등 수록곡은 자이언티만의 생각, 자이언티만의 언어가 돋보이는 곡들이다.

자이언티는 “난 내 이야기를 가사로 쓰는 가수다. 할 말이 없다면 노래를 만들지 못한다. 앨범 내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 건 할 말이 생기기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1집 Red Light(레드 라이트)가 2013년 4월에 나왔으니까 이번 앨범이 나오기까지 4년이 걸렸다.

그 사이 자이언티는 소속사를 옮겼고 싱글 ‘양화대교’(2014년 9월)로 거대한 성공을 거뒀다.

방송 출연을 아색해 하던 그는 ‘무한도전’ ‘쇼미더머니’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나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집과 2집 사이 간극은 커졌다.

전작이 넘치는 패기로 뮤지션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느낌을 줬다면, 이번 앨범은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졌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번 앨범은 제 성격과 취향, 그러니까 지금의 저를 담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앨범 같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변했고요. 어찌 됐든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 없어요. 내가 변했다면, 그 변화를 솔직하게 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가 변하지 변하지 않았든 대중은 그의 앨범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이언티는 이런 호응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배종지 않았다. 뛰어난 뮤지션들이 대개 그렇듯 자이언티 역시 완벽한 작업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땀땀하고 싶었다. 계속 음악을 할 거고 언젠가 내 자식들도 들을 노래를 만들어 당연히 땀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자이언티의 별명은 ‘음원 캠퍼다. 발표하는 노래마다 음원 차트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작업 비결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비결 대신 “내가 먹은 걸 소화할 뿐이다. 모든 아티스트가 그럴 것”이라는 평범한 대답을 내놨다. 다만 그는 “사소한 것들이 정말 크게 보이는 순간을 기억하려 한다”는 말도 했다.

“그런 순간이 가끔씩 찾아와요. 컵에 담긴 물 한 잔이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요. 흐르는 물방울 하나에 감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수 자이언티(Zion.T)(28·김해솔)는 지난 1일 지정 발표한 새 앨범 'OO'으로 모든 차트를 이른바 '올킬'(all kill)했다. 1위에 오른 타이틀 '노래'를 포함해 앨범 수록 7곡 모두 음원차트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지난 수개월간 음원 차트를 지배한 드라마 '도깨비' OST들은 단번에 지워졌다.

/뉴시스

### 전북 장애인 선수단, 전국장애인 동계체전 출전

전북 장애인 선수단이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에 걸쳐 경기도 및 강원도 서울 일원에서 열리는 '제 14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우리 선수단은 휠체어컬링,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빙상 등 6종목에 20명의 선수가 출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은 “동계종목은 경제적인 부담과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높으며, 특히 장애인에게는 훈련환경과 동상까지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감사드리며, 안전사고 없이 끝까지 진력으로 대회를 임하겠다”고 하였다.

/김민근기자

### 배우 이진욱 고소녀 재판서 혐의 부인

배우 이진욱(36)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시량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이씨의와의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본인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A씨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12일 이씨를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뒤 수사경찰서에 같은 취지로 이씨를 추가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소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같은달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뉴시스



### 매드클라운·불빨간사춘기, 7개 음원 사이트 1위

래퍼 매드클라운(32·조동림)과 듀오 불빨간사춘기(안지영·우지윤)가 합작한 노래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가 7개 음원 사이트 1위에 올랐다.

지난 3일 엠넷·올레·소리바다·몽키8·네이버·벅스·지니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표된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는 자이언티의 '노래'를 밀어내고 실시간 음원 차트 정상에 차지했다(오전 10시 기준). 다만 멜론에서는 5위에 올랐다.

매드클라운의 싱글인 이 노래는 헤어진 연인이 느끼는 그라운드 후회 등 이별 후 감정들을 담은 곡이다. 곡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매드클라운의 간결한 랩과 불빨간사춘기의 서정적인 목소리가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